

나노라

나라의 볼만한 곳

제3호
덴카와 촌

奈良
の
良い所

Access Map / アクセスマップ



덴카와촌

시모이치구치역에서 덴카와 촌까지 버스로 약1시간

- P3 :** **자연 가득한 덴카와 촌으로 타임슬립**
自然たっぷりの天川村でタイムスリップ
- P4 :** **신분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다 - 깊은 산속의 노(能)와 슈겐도(修験道)에 대해서**
神々とともに歩く - 山奥の能と修験道について
- P5 :** **슈겐도에서 탄생한 친근한 상비약, 다라니스케**
修験道から誕生した身近な常備薬、陀羅尼助
- P6-7 :** **몸도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는 도로가와 온천**
身も心も清められる洞川温泉
- P8 :** **제 3호를 발행하며**
第3号発刊にあたって

자연 가득한 덴카와 촌으로 타임슬립 自然たっぷりの天川村でタイムスリップ



자

동차로 수많은 산속을 지나 덴카와 촌으로 진입합니다. 이곳은 외국인에게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글을 읽고 있는 분은 미지의 장소를 체험할 찬스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에는 긴테쓰 시모이치구치역(下市口駅)에서 전차를 내려 버스를 타고 약 1시간정도 거리입니다. 1시간이 길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고 있으면 눈감잡힐 사이이며, 옛 모습을 간직한 일본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일본의 역사는 나라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나라현의 남부에 위치한 덴카와 촌을 방문하면 '역사나!'하고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연이 가득한 곳!

덴카와 촌에 방문하여 가장 먼저 인상적인 것은 미타라이 계곡입니다. 기나긴 세월을 걸쳐 만들어진 이 경치 안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초록 삼림과 파란 계곡물의 아름다운 풍경이 시야

가득 펼쳐집니다. 저희들이 찾았을 때에는 가을로, 계절이 깊어짐에 따라 그 경치가 빨강과 노란색으로 물들어갑니다. 강과 폭포의 소리가 들려와 눈을 감아도 귀로 자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에의 감사!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자연과 함께이며 자연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신도에서는 자연을 신으로 숭배합니다. 슈겐도나 불교에서는 험한 자연 속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여러분들에게는 나라를 찾는다면 꼭 가보았으면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天河大辨財天社)입니다. 이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에는 '벤텐(弁天) 님'이라고 하는 물과 예능을 관장하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신사로 일본의 3대 벤텐의 필두이기도 합니다. 신도문화나 일본인과 자연의 관계에 흥미가 있는 분들께 특히 추천합니다. 일본 특유의 신불 혼합의 제사형태에 대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에너지가 가득한 이 자연 속에서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은 명상을 하기도 기도를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7세기에 활약한 엔노교자(役行者)가 오미네산에서 수행한 것을 기원으로 오미네산에는 많은 슈겐도 수행자들이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류센지 절(龍泉寺)은 이러한 슈겐도의 수행자들이 오미네산에 들어가기 전에 심신을 정화하기 위한 절로서 지어졌습니다. 덴카와 촌을 가로지르는 오미네 오쿠가게미치 길(大峯奥駈道)은 기이산지의 영장



일본의 가을하면 단풍

日本の秋といえば、紅葉

과 참배길의 일부로서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찾으시면 영적인 기운을 가득 받아 건강해 질 것입니다!

자연과 신사, 불각을 즐긴 후에는 도로가와 지구로 이동하여 일본 전통 온천가의 거리를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지친 몸을 일본의 스타일로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로가와 온천! 여러분도 꼭 한번 체험해 보십시오.

하마두 무르드

자연속에 있는 [도치오 칸논당]

自然の中にある栃尾観音堂



피곤한 몸을 일본 스타일로癒すことができます。それは、洞川温泉！どうぞ皆様、お楽しみください。

ハマドウ ムルードウ

車でたくさんの山々を越え、天川村に入ります。外国人にはあまり知られていない場所なので、これを読んでいらっしゃる方は、穴場スポットを体験するチャンスですよ。公共交通機関を使用する場合は、近鉄下市口駅で電車を降り、バスに乗って約1時間です。1時間は長いように聞こえますが、美しい自然を眺めながらの旅路はあっという間で、昔ながらの日本を発見することができ、おススメです!

日本の歴史は、奈良から始まったと言われています。奈良県の南部に位置する天川村を訪れると、「なるほど!」と納得することでしょう。

自然たっぷり!

天川村を訪れ、最初に印象的だったのがみたらい溪谷です。非常に長い時間をかけて作られたこの景色の真



자연과 산에 둘러싸여있는 덴카와 촌
自然と山に囲まれている天川村

ん中にいると、心も身体もリフレッシュできます。森林の緑と川の青の美しい風景が、視界いっぱい広がっています。私達が訪れたのは秋でしたが、秋が深まるにつれ、その景色は赤と黄色に染まっていきます。川や滝の音が聞こえ、目を閉じて耳で自然を感じることが出来ます。

自然への感謝

この地に暮らす人々は、常に自然とともにあり、自然に感謝しています。日本の神道では、自然を神様として崇拝することがあります。また、修験道や仏教では、厳しい自然の中で修行することもあります。

外国人観光客の方には、奈良を訪れたら是非行って欲しいところがあります。それは、天河大辨財天社です。この天河大辨財天社では、「弁天様」という水の神様を祀っています。とても美しい神社で、日本の三大弁天の筆頭とされています。神道文化や日本人と自然との関係に興味がある方には特におすすめです。日本独特の神仏混合の祭祀形態についても学ぶことができます。

スピリチュアルなエネルギーが満ちたこの自然の中で、長い間、人々は瞑想したり祈りを捧げたりしてきました。7世紀に活躍した役行者が大峯山で修行をしたことに始まり、大峯山には多くの修験道者が集まるようになりました。龍泉寺は、修験道者が大峯山に入る前に心身を清めるためのお寺として建てられました。天川村をまたぐ大峯奥駈道は、「紀伊山地の霊場と参詣道」として世界文化遺産に登録されています。この地を訪れると、スピリチュアルなエネルギーを受けて元気になりますよ!

自然と神社仏閣を楽しんだ後は、洞川地区に移動して、日本らしい温泉街の町並みを歩きましょう。そして、



[도로가와 온천]
洞川温泉

신불이 깃든 장소를 찾아가다 - 깊은 산속의 노(能)와 슈겐도(修験道)에 대해서

神々とともに歩く - 山奥の能と修験道について

300년 전 엔쿠(円空)에 의해 만들어진 도치오칸논당(栃尾観音堂)의 엔쿠불상, 제아미 모토키요(世阿弥元清)의 아들, 간제주로 모토마사(観世十郎元雅)가 봉납한 덴카와 다이벤자이텐(天河大弁財天)의 노(能) 가면과 의상, 몸과 정신을 정화시키는 류센지의 용수

이 모든 것이 나라의 깊은 땅, 덴카와 촌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슈겐도 사상에 의하면, 구마노 지구는 태장계(모태의 뱃속에서 보호되는 세계), 요시노 지역은 금강계(태어난 후의 험난한 실세계)라고 여겨집니다. 덴카와 촌은 그 중간점에 위치하여 제로 지점, 탄생, 출발의 땅이며, 영적인 기운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덴카와 촌에는 자연을 숭배하는 신도와 슈겐도, 그리고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불교가 공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숨겨진 것은 아는 사람만 아는 역사와 문화입니다.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의 노(能) 무대
天河大弁財天社の能舞台

그 덴카와 촌에 덴무천황이 조영하였다고 전해지는 덴카와 다이벤자이텐 신사가 위치해 있습니다. 약 600년 전에 간제주로 모토마사가 덴카와 촌에 노(能)를 전했다고 하며, 이후 자가류의 노가 발전하였습니다. 그때문에 다이벤자이텐 신사에는 중요문화재를 포함한 수백점의 의상이나 노 가면이 소장되어 있으며, 노 무대까지도 갖추어져 있습니다. 노 무대는 현재 노를 상연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유 등의 다양한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장엄한 분위기 안의 노 무대에서 상연되는 노를 감상하며 일본 미의식의 본질이라고 일컬어지는 유겐(幽玄)의 의미를 체험해보고 싶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만들어진 용의 입에서는 용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흰색의 수행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주지스님께 미즈교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주지스님이 불경을 읊은 다음 두 번 절을 하고 합장한 채로 '부탁드립니다(오네가이시마스)'라는 목소리와 함께 연못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연못 문과 용이 서있는 바위의 중간점까지 걸어가서 물 속에서 합장한 후 '감사합니다(아리가토고자이마스)'라고 외치고 미즈교 의식을 마칩니다. 저는 불경을 몰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별히 주지스님께 불공을 부탁드립니다. (스스로 불경을 외우고 의식을 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즈교 의식에 의해 몸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정화할 수 있어서 자연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기회가 있으시면 꼭 도전해 보십시오.

또한, 류센지 절에는 나데이시(쓰다듬는 돌)이라는 돌이 있습니다. 손으로 쓰다듬으면 가볍게 들어올릴 수 있지만 때리면 무거워지는 돌입니다. 슈겐도, 불교, 신도의 야오요르즈(八百万, 만물이 깃들여 있다는 사상)의 개념을 실감할 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소중하게 하는 일본인들의 풍습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역사와 자연이 넘치는 덴카와 촌을 오감으로 체험하기위해, 방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루카스 보닉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의 가키사카 마사다카씨
天河大弁財天社の柿坂匡孝氏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
「天河大弁財天社」

슈겐도로 유명한 류센지 절은 엔노교자가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용수를 발견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곳에 하치다이류오(八大龍王)를 모시고 수행한 것이 류센지 절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슈겐도에서는 산 그 자체가 신으로 여겨집니다. 슈겐도의 수행자들은 성스러운 오미네산에 수행해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용의 입에서 흐르는 용수로 몸을 정화하는 의식을 행하였습니다.

이번에 저도 슈겐도 수행자의 찬물로 몸을 깨끗하게 하는 의식인 미즈교(水行)를 체험해 보았습니다. 본당 앞의 연못 안에 돌로

300年前に彫られた栃尾観音堂の円空仏、世阿弥元清の息子、観世十郎元雅が奉納した天河大弁財天の能面と能衣装、体と魂を清められる龍泉寺の湧き水。

これらすべては奈良の奥地、天川村に存在しています。

修験道思想によると、熊野地区は胎蔵界(母のお腹の中の守られた世界)、吉野地域は金剛界(生まれてからの厳しい実世界)と考えられています。天川村は、その中間点に位置し、ゼロ地点・誕生・出発の地であり、スピリチュアルなエネルギーにあふれた場所です。天川村には、自然を崇拝する神道や修験道、そして自然を大切にしている仏教が共生しています。そこに隠れているのは、知る人ぞ知る歴史と文化です。

その天川村に、天武天皇が造営したと伝えられている天河大弁財天社があります。約600年前に観世十郎元雅が天川村に能を伝えたといわれており、以降、我流の能が発展しました。そのため、大弁財天社には重要文化財を含む数百点の衣装や能面が所蔵されているほか、能舞台までもがそろっています。能舞台は現在、演能だけでなく、ヒーリングなどの様々な目的で利用されているそうです。荘厳な雰囲気の中、その能舞台で演能を鑑賞

し、「幽玄」という言葉の意味を体験してみたいと思いました。

修験道で有名な龍泉寺は、役行者が岩から流れてくる湧き水を発見したことに始まります。そこに八大龍王尊をお祀りし、水行をしたのが龍泉寺の始まりとされています。修験道では、山そのものが神であると考えています。修験者たちは聖なる大峯山に修行に入る前に、龍の口の湧き水で体を清め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この度、私も修験者の水行を体験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



류센지 절의 미즈교
龍泉寺での水行

た。本堂前の池の銅色の岩にある竜の形の蛇口から湧き水が流れています。白装束に着替え、ご住職より水行の説明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ご住職にお経を読みあげていただいた後、二礼、合掌し、「お願いします」の声とともに池に入ります。門と岩の中間点まで進み、水の中で正座、合掌し、目を閉じてお経を唱えます。唱え終わったら池から上がり、また二礼してから合掌して、「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と叫び、水行が終わります。お経が分からない私に、今回はご住職より特別にお勧めをしていただきました(通常はご住職による対応は無く、水行は各自で行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水行により、体のみならず魂まで清めることができ、自然により近づいたように感じました。もし機会があれば、挑戦してみてください。

また、龍泉寺には、なで石という石があります。手でなでると軽く持ち上げられますが、叩くと重くなります。これにより、修験道・仏教・神道においての八百万の神の概念(全てのものに命が宿っているという考え)を実感することができ、ものを大事にする日本の風習をより理解できたと思います。

深い歴史と自然が溢れている天川村を、五感で体験しに来ませんか?

ボニック ルーカス

슈겐도에서 탄생한 친근한 상비약, 다라니스케 修験道から誕生した身近な常備薬、陀羅尼助



[제니타니쇼카쿠도]
「銭谷小角堂」

나의 가정에는 상비약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다고 하는 다라니스케. 이전에 배탈이 났을 때 동료가 건내준 이 다라니스케를 먹고 개운하게 나은 경험도 있어서, 저는 이 약에 예전부터 흥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풍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이하여 덴카와 촌을 방문하였습니다. 나라시에서 차로 3시간, 운치있는 도로가 와 온천가로 진입하니 훌륭한 온천여관이 죽 늘어서 있었으며 그 중에는 다라니스케라는 간판을 내건 곳도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미네 지방의 토산품이라고 하면 다라니스케라는 말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안으로 더 들어가니 온천가의 분위기를 지키면서 서 있는 목조건물이 보였습니다. 이곳이 제니타니쇼카쿠도입니다. 덴카와 촌에는 다라니스케를 취급하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제니타니쇼카쿠도를 방문하였습니다. 가게 안에는 다양한 패키지에 들어있는 다라니스케와 그 다라니스케를 모티브로 한 귀여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약을 판매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다라니스케를 캐릭터화한 것에

의해 젊은 세대에게도 친숙하게 느껴지게 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5대에 걸쳐 제니타니쇼카쿠도를 경영하는 제니타니 다카히로님께 다라니스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어볼 수 있었습니다.

Q: 다라니스케라는 이름은 매우 독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유래와 역사에 대해서 알려주십시오.

A: 약 1300년전, 슈겐도를 연 엔노교자(오즈누)가 이 약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을 도왔다 하는 전승이 있어, 일본약의 원조라고 일컬어집니다. 이름의 유래는 승려들이 길고 졸릴기도 한 다라니스케 경전을 읊을 때에 수마를 방지하기 위하여 쓴 약을 입 안에 머금었다는 것에서 다라니스케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매우 쓴 약으로 예전에는 납작한 판의 형태였지만, 복용하기 쉽게하기 위하여 알 형태로 바뀐 것은 최근 백년 전의 일입니다.

Q: 다라니스케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A: 굴과 비슷한 과인 황백을 잘려 그 액기를 굳혀서 만듭니다. 황백은 설사를 멈추고 살균작용이 있어서 오랜 옛날부터 전해오는 쓴맛의 약입니다. 다라니스케의 효능은 복통, 설사, 숙취 등으로 자연에서 채취한 생약이므로 부작용이 없고 몸에 좋은 약입니다.

Q: 도로가와지구에는 다라니스케를 판매하고 있는 가게가 많이 있습니까? 다른 점이 있습니까?

A: 도로가와지구의 다라니스케는 공동으로 제조하고 있으므로 내용물은 같으며, 패키지만 가게별로 다릅니다. 그러나 요시노야마에서 만들어지는 다라니스케는 배합도 조금 다르며, 알의 크기와 복용수



제니타니쇼카쿠도에 있는 캐릭터상품
銭谷小角堂にあるキャラクターグッズ

도 다릅니다.

다라니스케는 단순한 약을 넘어, 그 탄생에서 슈겐도라는 종교와 깊은 관련이 있어, 오랜 옛날부터 민간약으로 사용되어 온 것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억불정책에 의해 지금도 역사가 오래된 절은 깊은 산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덕분에 옛날의 절은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약용식물과 민간치료의 집약지이며, 병원이 없었던 시절에 민간의 치료시설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한국과 같이 종교와 민간약이라는 관계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수행자들의 지혜와 역사가 만들어진 약, 다라니스케. 덴카와 촌을 방문할 때는 꼭 선물로 구입해 보시는건 어떠세요?

文 関貞

奈良の家庭では常備薬として必ず持っていると言われている陀羅尼助。以前、お腹をこわしたときに同僚が渡してくれた陀羅尼助を飲んですっかり治ったことがあり、私はこのお薬には前から興味を持っていました。今回は紅葉の美しい季節を迎え、天川村を訪れました。奈良市から車で3時間、風情のある洞川温泉街に入ると、立派な温泉旅館がずらりと並ぶ中、陀羅尼助という看板がたくさん目に入りました。大峯のお土産と言ったら陀羅尼助!ということが実感できました。奥に進むと温泉街の雰囲気を保ちながら立っている木造建物が見えました。天川村にはたくさんの陀羅尼助を扱うお店がありますが、今回はそのうちの一軒、銭谷小角堂さんを訪ねました。店内には様々なパッケージに入った陀羅尼助とその陀羅尼助をモチーフにした可愛いキャラクター商品が置いてあります。薬の販売だけではなく、陀羅尼助をキャラクター化することにより、若い年代にも親しみやすくなっていました。ここで、5代に渡り、銭谷小角堂を営む銭谷さ

んから陀羅尼助についての話を伺うことができました。

Q: 陀羅尼助という名前はとても独特だと思えますが、その由来と歴史を教えてください。

A: 約1300年前、修験道を開いた役行者(小角)がこの薬を作り多くの人を助けたという伝承があり、和薬の元祖とも言われています。名前の由来は僧侶たちが長くて眠い陀羅尼経を唱える時、睡魔を防ぐためにこの苦い薬を口に含んだことから陀羅尼助という名前を付けたと言いう説があります。大変苦い薬で、昔は板状のものでしたが、飲みやすい粒状になったのは、ここ百数十年のことです。

Q: 陀羅尼助はどんな成分で作られ、どんな効能がありますか?

A: ミカン仲間である黄柏(オウバク)を刻み、そのエキスを固めて作ります。黄柏は下痢止めと殺菌作用もあり、古くから伝わっている苦味薬です。陀羅尼助の効能は腹痛、下痢、二日酔いで、自然からとれる生薬ですので副作用も少なく、体に優しい薬です。

Q: 洞川地区には陀羅尼助を販売している店がたくさんありますが、店ごとに違いはありますか?

A: 洞川地区の陀羅尼助は共同で製造しているので中身は一緒で、パッケージだけお店ごとに違います。しかし、吉野山で作られている陀羅尼助は配合が少し違い、粒の大きさや服用数も異なります。

陀羅尼助は単なる薬を超え、その

誕生から修験道という宗教と深い関係があり、古くから民間薬として愛用されてきたことはとても興味深いことでした。韓国では抑佛政策により、今も歴史の古いお寺は深い山の奥に位置しています。そのおかげで、昔お寺は宗教施設だけではなく、薬用植物と民間治療の集約地になり、病院のなかった時代に民間の治療施設としても使われました。そんなことから韓国と同じ宗教と薬という関係での共通点を発見し、親しみを感じました。修行者たちの知恵と歴史が生み出した薬、陀羅尼助。天川村を訪れる際は、ぜひお土産としてどうぞ。

文 関貞



제니타니쇼카쿠도의 제니타니 다카히로씨
銭谷小角堂の銭谷貴大氏



몸도 마음도 정화시킬 수 있는 도로가와 온천

身も心も清められる洞川温泉



신 비적이며 숨막히게 아름다운 단풍으로 물든 오미네 산, 맑

고 투명한 산조강의 주변 풍경. 류센지 절에서 산조 강에 걸쳐진 붉은색의 칸논 다리를 건너면 도로가와 온천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중국의 시인 유우석의 '山不在高有儂則名 水不在深有龍則靈 (산이 높지 않아도 신선이 살면 유명한 산이요, 물이 깊지 않아도 용이 살면 신령한 물이다.)'라는 시구절은 바로 이 도로가와 온천의 환경을 묘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가와 온천은 전 세계에 눈을 돌리고 찾아보아도 만날 수 없는 귀중한 환경에 축복받은 곳입니다.

저희들은 오미네 산 도로가와 온천 관광협회의 하나타니 요시하루 회장님께 도로가와 온천가에 대한 이야기를 여쭙어 보았습니다.

Q: 일본은 온천대국이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이 온천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있어서 일본여행의 큰 매력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른 온천지에는 없는 도로가와 온천가만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A: 도로가와 온천지구가 다른 온천지와 다른 점은 우선 기후입니다. 표고가 820m 정도이기 때문에 단풍이 빨리 시작되며, 벚꽃은 늦

여관 [하나야토쿠베]
旅館「花屋徳兵衛」



오미네 산 도로가와 온천 관광협회의 하나타니
요시하루 회장 (오른쪽 상단)
大峯山洞川温泉観光協会の花谷芳春会長(写真右上)



神 秘的で息をのむ美しい紅葉に染まれた大峯山、澄き通った山上川のほとり。龍泉寺から山上川に架かる赤い観音橋を渡れば、洞川温泉郷に入ります。中国の詩人劉禹錫の「山は高きに在らず、仙有らば則ち名あり。水は深きに在らず、竜有らば則ち靈あり」という絶句はまさに洞川温泉の環境が描かれていると言えるでしょう。洞川温泉は、世界に目を向けても出会うことのない貴重な環境に恵まれています。

私たちは大峯山洞川温泉観光協会の花谷芳春会長に洞川温泉街についてお話を伺いました。

Q: 일본은 온천대국と呼ばれます가, 온천은 외국인 관광객にとっては日本旅行의 大きな魅力의 一つになります. ほか의 온천地にはない洞川温泉街의 魅力は 何だと

思いますか。

A: 洞川温泉地区가 其他의 온천地와 違う ところは 気候です. 標高가 820m 程度なので, 紅葉は 早く 始まり, 桜は 遅く 見られ, 夏は 涼しい です. そして, 洞川温泉は 日本で 初めての 都가 がおかれた 奈良県에 あり, 日本의 原点의 宗教とも 言われている 真言宗의 発祥地 でもあります. 山의 崇拜, 自然의 崇拜に 興味가 ある 方は, 是非 登山後 洞川温泉 で 体を 癒して ください.

Q: 洞川温泉は 修験道와 山의 崇拜와 強く 結びついて, 魅力가 たっぷり ですね. では, 洞川旅行의 베스트 시즌은 どの 頃 でしょうか.

A: 베스트 시즌은 やはり 夏場 ですね. 但是, 洞川 には 紅葉 や 美しい 渓谷가 秋의 見どころ ですので, 最近は 秋의

風景를 楽しむ 観光客 が増え ました. その ほかにも, 毎年 名水まつり(4月), 行者まつり(8月), もみじまつり(11月)가 行われています. 行者まつり는 毎年 8月 2日~3日 に行われ, 100年 ほど 歴史가 あります. 祭りは 大峯山 開祖·役行者가 伊豆大島 へ 流されて, 的 ちに 冤罪だと わかり 戻されて きた こと を 祝う こと が 始まり ですね. 温泉街は 浴衣姿의 温泉客, 修行者 或 参詣者 などで 賑わい, いわば 大峯山의 祭として 大変 有名 ですね.

Q: オールシーズン 楽しめます ね. 最後 洞川温泉의 グルメ를 紹介して 頂きたい ですね.

A: 会席料理は もちろん, 大峯猪를 使った ぼたん鍋가 好評 ですね. 腕의 いい 料理人가 厳選した 肉를 使用して あり, おすすめ ですね.



[도로가와 온천 센터]
「洞川温泉センター」

도가 위치했던 나라현에 있어서 일
본의 원점적인 종교라고도 할컬어
지는 진언종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산에 대한 숭배, 자연에 대한 숭배
에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꼭 등산하
신 후에 도로가와 온천에서 지친 몸
을 치유해 주십시오.

Q : 도로가와 온천은 슈겐도의
숭배와 깊은 연관이 있어서 매우
매력적이네요. 그럼, 도로가와 여
행의 베스트 시즌은 언제입니까?

A : 베스트 시즌은 역시 여름철입
니다. 그렇지만 도로가와와는 단풍이
나 미타라이 계곡이 가장 볼만한 곳
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가을을 풍경
을 즐기러 오는 관광객도 늘고 있
습니다. 그 외에도 매년 메이スイ[
名水] 축제(4월), 교자[行者] 축제(8
월), 단풍 축제(11월)가 열리고 있
습니다. 교자 축제는 매년 8월 2일
~3일에 열리며, 100년 정도의 역사
를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는 오미
네산을 연 시조, 엔노교자가 이즈
오시마 섬으로 유배되었지만, 이후
면죄인 것을 알고 돌아온 것을 축
사하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온천가는 유카다 차림의 온
천객, 수행자와 참배자로 특징이
는 이른바 오미네산의 독특한 축제
로 매우 유명합니다.

Q : 모든 시즌에 걸쳐 즐길 수 있
는 곳이군요. 마지막으로 도로가와
온천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해 주십
시오.

A : 가이세키 요리는 물론 오미네
산 멧돼지를 사용한 냄비요리가 유
명합니다. 솥씨가 좋은 요리인이
엄선한 고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추천드립니다.

이 외에도 일본의 남녀혼욕에 대
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만, 현재에
는 남녀혼욕이 거의 남아있지 않
다는 것입니다. 사료에 의하면 메이
지 정부는 풍기문란 등의 이유로 남
탕과 여탕을 분리하였다고 합니
다. 외국인도 안심하고 현대의 일
본온천을 체험할 수 있겠지요.

또한, 이번에 이야기를 나눈 하나
타니 씨의 료칸, 하나야토쿠베의
내부를 관람할 수 있었습니다. 외
관도 멋진 온천료칸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니 한층 더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혼욕탕, 사계절마다 변화
하는 산을 바라볼 수 있는 노천탕
은 물론이고, '슈겐의 숙박지' 포토
갤러리가 도로가와 지역의 온천료
칸만의 풍경과 정취를 빚어내고 있
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야토쿠베
료칸을 관람하였습니다만, 도로가
와 온천료칸에는 이외에도 많은 훌륭한 온천료칸들이 있습니다.

그 후 우리들은 당일치기 입욕시
설인 도로가와 온천센터에서 온천
을 체험하였습니다. 6년전 처음
로 일본에 왔을 때에 온천에 처음
들어갔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중국에서는 수영복을 입은 채로 노
천에서 남녀가 함께 온천에 들어가
지만, 일본에서는 남탕과 여탕이
나뉘어져 벗은 몸으로 들어가는 광
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경험이 있습
니다. 거기에 온천에 들어가기 전
에 샤워로 몸을 깨끗하게 씻고, 욕
탕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수건
뿐입니다만, 그 수건도 물이 닿지
않도록 머리에 얹어야하는 료이 있
습니다. 이것도 물론 일본 특유의
목욕 방법이지요. 도로가와 온천센
터에서는 내탕과 노천탕이 둘다 갖
추어져 있어, 온천수의 온도도 각
각 다릅니다. 저는 우선 내탕에
서 몸을 따뜻하게 한 후 노천탕으
로 이동하였습니다. 바깥은 추웠지
만, 몸은 중심부터 따끈따끈해져
왔고, 깊은 산의 풍경을 감상하며 더
할나위 없는 행복한 시간을 만끽하
였습니다. 도로가와 온천은 약알칼
리성 단순천으로 입욕 후에는 피부
가 매끈매끈해졌습니다!

밤에는 초롱불의 불빛으로 쇼와
시대(1926년~1989년)의 거리의
분위기가 감도는 '교차상 거리'를
산책하고 타임슬립한 기분을 느꼈
습니다. 일본의 정서, 쇼와시대의
레트로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영화 '부운'

나루세 미키오 감독 1955년작)과
같은 쇼와시대의 영화에 자주 등장
할 것 같은 씬을 연상했습니다. 타
임슬립 체험을 좋아시는 분들께는
추천드립니다.

일본을 여행하고 싶은 분은 꼭
일본의 온천을 체험해 보십시오.
류센지 집에서 미즈고리(水垢離,
신불에게 기원하기 전에 냉수로 목
욕하여 몸을 깨끗하게 하고, 더러
움을 씻어내 심신을 정화하는 의
식)를 한 후, 도로가와 온천에 들어
가 몸을 따뜻하게 하고 심신을 치
유하는 이러한 더할나위 없는 행복
한 시간을 보내보시는 것은 어떠신
지요?

TIPS :

- 일본에서의 온천입욕매너
- 몸을 깨끗하게 씻고 욕조에
- 맨몸으로 입욕. 수영복은 입지
- 타올은 머리에 올리고 탕 안에는
- 욕조 내에서는 몸을 비비지 않
- 머리를 묶고 입욕할 것
- 한번에 오래 탕안에 머물지 말
- 휴식과 급수를 병행
- 환화는 주변에 폐가 되지 않도록.

장 민



そのほか、日本の男女混浴についても聞きました。現在
は男女混浴はあまり残っていないとのことでした。史料
によると、明治政府は風紀が乱れるなどの理由で男湯と
女湯を別にしたということです。外国人は安心して現代の
日本温泉を体験できますね。

また、今回お話を伺った花谷さんの旅館、花屋徳兵衛
さん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外観も素敵な温泉旅館
は、中に入ってみるとより一層の趣が味わえます。家族
で利用できる混浴風呂や、四季折々の山を見ながら入
る露天風呂もさることながら、「修験の宿」フォトギャラ
リーが洞川地域の温泉旅館ならではの風情を醸し出して
います。今回は花屋徳兵衛さんを見せていただきました
が、洞川温泉地区には、このほかに沢山の素敵な温泉
旅館があります。

その後、私たちは日帰り入浴施設の洞川温泉センター
で温泉を体験しました。6年前初めて日本に来た時の温
泉初体験を思い出しました。中国では水着を着たま
ま露天で男女混浴ですが、日本では男湯と女湯に分かれて
おり、裸で入っているその光景にびっくりしました。それ
に、温泉に入る前はシャワーで体をきれいに洗って、湯
船に持っていけるのはせいぜいタオルくらいですが、そ
のタオルも頭の上に乗せるなどして湯船に入れてはいけ
ないルールがあります。いずれも日本ならではのやり方
ですね。洞川温泉センターでは、内湯と露天風呂両方が
あります。お湯の温度もそれぞれ違いました。内湯で体
を温めてから、露天風呂に移動しました。外は寒いで
すが、それでも体の芯からぽかぽかしてきて、奥山を眺め
ながら至福の体験を満喫しました。洞川温泉は弱アルカ
リ性単純泉で、入浴後はお肌がすべすべになりました！
夜には、提灯の灯りで昭和の風情を漂わせる「行者さん
通り」を散策して、タイムスリップした気分を味わえます。
日本情緒、昭和のレトロな雰囲気を感じられる場所だ
と思います。「浮雲」のような昭和時代の映画で良く出て
きたシーンを連想しました。タイムスリップ体験がお好き
な方におすすめです。

日本を旅行したい方は、是非日本の温泉を体験してく
ださい。龍泉寺で水垢離(神仏に祈願する前に水を浴び
て身を清め、穢れをとり除いて心身を清浄にすること)
の後、洞川温泉に入って体を温め、心身ともに癒やされ
る、このような至福のひとつを過ごしてはいかがでしょうか。

日本での温泉入浴マナーとコツ:

- 体を洗ってから浴槽へ入る
- 水着は着用できない
- タオルは湯船に入れない
- 浴槽内で体をこすらない
- 髪をまとめて入浴する
- 会話は周りの迷惑にならないようにする
- 一気に長湯せず休憩や給水を挟む

張 敏

**日本の伝統적인 숙박시설 [여관]에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日本の伝統的な宿泊施設「旅館」で一日の疲れを癒しましょう!**



제 3호를 발행하며



제 3호를 발행하며

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라현 국제과에 근무하고 있는 국제교류원입니다. 나라현과 해외 각국과의 교류를 진전시키는 가교가 되기 위해 매일 국제교류와 관광업무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나노라’는 외국인의 시선에서 본 나라현의 매력을 외국인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위해 나라현에서 발견한 매력이나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스스로 취재하고 기사화 한 것입니다. 본 정보지가 나라현에 흥미를 가지는 계기 또는 외국인이 느끼는 나라의

매력을 발굴하는 단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에는 덴카와 촌을 취재하였습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않은 아름다운 자연과 마을의 역사적인 풍경이 낯은 조화가 매우 인상적이었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일본하면 도심만을 생각하는 외국인에게는 매우 신선하게 와 닿는 장소라고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취재에 협력해주신 오미네 산 도로가와 온천 관광협회, 제니타니쇼카쿠도, 덴카와다이벤자이텐 신사, 덴카와 촌 관공서, 도로가와 온천센터, 유센지 절을 시작으로 덴카와 촌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나라현 국제교류원 일동 :

(문 윤정, 하마드 무르드, 장민, 포닉 루카스)

발행원 정보에 대해서 :

『나노라(奈の良)』 발행원 : 나라현 지사공실 국제과

본 정보지에 대한 의견, 질문 등은 아래로 연락 주십시오 :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iad-nara@mahoroba.ne.jp

第3号の発刊にあたって

こんにちは。

私たちは奈良県国際課に勤務する国際交流員です。奈良県と海外の交流を深める架け橋となるべく、日々、国際交流・観光業務に従事しています。

『奈の良』は、外国人の目線で見えた奈良県の魅力を外国の方に紹介するため、奈良県で見つけた魅力やおもしろいことについて自ら取材し、記事にしたものです。本誌が奈良県に興味を持つきっかけや外国人が感じる奈良の魅力を発掘する手がかりとなれば嬉しく思います。

今回は天川村を取材しました。手つかずの美しい自然と村の歴史的な街並みの共生がとても印象的で感動しました。日本イコール都会というイメージを持つ外国人にはとても新鮮に映る場所だと感じました。

最後に、今回の取材にあたり御協力いただいた、大峯山洞川温泉観光協会、銭谷小角堂、天河大辨財天社、天川村役場、洞川温泉センター、龍泉寺をはじめ、天川村の方々にお礼申し上げます。

奈良県国際交流員一同:

文 閔貞(ムン ユンジョン)、ハマドゥ ムルードゥ、
張 敏(チョウ ピン)、ポニック ルーカス

発行元情報について:

『奈の良』発行元: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本誌に関するご意見、ご質問等はこちらまで:

〒630-8501 奈良市登大路町30 奈良県知事公室国際課
iad-nara@mahoroba.ne.jp

